

〈제 622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 광주방송

### ◆ 임채영 신임 사장 취임



광주방송(kbc)은 창사 26주년을 맞아 지난 8일 뉴비전 선포식과 함께 자사출신 임채영 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광주방송은 뉴비전 선포식에서 지상파방송 사업자에서 종합 콘텐츠미디어로서의 도약을 선언하고 이를 위해 AI와 방송의 융합, 온라인 데이터조사시스템 구축, 유망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인 스타트업 챌린지 2021, 전자상거래 ‘종드만 마켓’ 론칭, 지역공동체 지킴이 ‘kbc 희망나눔봉사단’ 출범, 인터넷 미디어 창간 등 6대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

이와 함께 창사 26년 만에 최초로 내부에서 발탁된 임 사장은 “직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미디어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광주은행

### ◆ 1천만원 교복 후원하며 새학기 희망을 선물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2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신학기 사랑을 입어요’ 교복 후원 행사를 가지며, 1천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신학기를 맞이한 지역의 결손가정 청소년 20명에게 교복을 후원하고자 마련했으며,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김은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 지역본부장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교복 후원행사에서 전달된 교복 후원금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추천한 중·고등학교 신입생 2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이중 대표로 참석한 학생들에게 교복 후원증서와 운동화 선물을 전달했다.

광주은행의 ‘신학기 사랑을 입어요’ 교복 후원 행사는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그동안 총 6천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 서산

### ◆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퇴임

## 염홍섭 하남산단 이사장, 33년만에 명예퇴진

### 도로 개설 등 산단 환경개선 주력 “개인·회사보다 산단 최우선”

지난 1987년 (사)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초대 이사장을 맡은 뒤 11대까지 33년을 연임한 염홍섭(사진) 이사장이 4일 퇴임하고 고문으로 위촉됐다.

염홍섭 전 이사장은 이날 이임사를 통해 “하남산단 초창기 열악한 도로 상황 개선을 위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해 관계기관에 수차례 요청해 2차선에서 4



차선, 어떤 곳은 6차선으로 확장시켰던 때가 떠오른다”며 “또 공장 지붕이 없어 비를 피할 처마를 지어서 사용하다 적발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때마다 이사장인 저는 관련 기관장을 만나서 많은 민원들을 해결하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지난 33년간 이사장직을 역임하면서 가장 자부하는 점을 꼽자면, 개인적

차선, 어떤 곳은 6차선으로 확장시켰던 때가 떠오른다”며 “또 공장 지붕이 없어 비를 피할 처마를 지어서 사용하다 적발되는 등 많은 어

인 일이나 회사의 업무보다 산단 관련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일했다. 산단의 조그만한 일도 입주업체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며 노력했고 사비까지 써가며 사심없이 운영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남산단의 자립을 위해 2차 단지 조성부터 3차 단지 조성까지 50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일류산단이 되도록 노력했다”며 “앞으로 산단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해주실 박흥석 이사장님께 아낌없는 지원과 힘찬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박성원 기자

## 력키산업

### ◆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취임

## 박흥석 “하남산단 변화 이끌고 광주 산업발전 견인”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취임  
“코로나 등 난관 슬기롭게 극복”  
광주형일자리·AI산업 발전 기대  
“정부·광주시·지역민 힘 합해야”

1981년부터 조성을 시작한 광주 하남산업단지는 타 지역에 비해 제조업 인프라가 부족해 ‘소비도시’로 낙인 찍힌 광주를 ‘생산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추진한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하남산단은 국가산단 중 포항철강산단과 대구성서산단 등에 이어 3번째로 규모가 큰 산업단지로 탄생했다. 하지만 당시 하남산단은 일부 업체의 공장 등 생산시설만 옮겨왔을뿐 도로 등 기반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매우 열악했다.

허허벌판에 몇개의 공장만 들어선 하남산단에는 좁은 2차선 도로만 개설돼 출·퇴근 시간 심각한 교통정체가 빚어지고 잦은 사고로 ‘살인도로’라는 오명이 붙을 정도였다.

1987년 9월 하남산단 기반시설 확충과 입주기업 지원 및 생산성 제고, 각종 교육 및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사)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 설립됐다. 공단은 인프라 조성, 입주기업 경쟁력 향상 등을 이끌며 하남산단이 광주·전남을대표하는산업단지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 4일 33년 만에 새 이사장을 맞았다. 초대부터 11대까지 연임한 염홍섭 이사장이 물러나고 박흥석 12대 이사장이 취임했다.

공단은 이날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대회의실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박흥석 신임 이사장은 하남산단의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노력을 다짐하고 전임 염홍섭 이사장에 감사를 표시했다.

박 이사장은 “오늘 이임하신 염 이사장님은 하남산단의 조성 과정부터 완공 때까지 본인의 사업 이상으로 각고의 열정을 펼쳐 훌륭한 공업단지를 만드셨다”며 “공단 업무 뿐만 아니라 지역 여러 현안에



박흥석 이사장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깊은 관심을 갖고 협력해주셨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큰 지도력으로 가르침을 주셨기에 언제나 든든한 힘이 됐다”고 전했다.

박 이사장은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하남산단의 변화와 부흥을 이끌고 광주 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그는 “하남산단은 지난해 말 기준 1000여개의 기업체에 2만300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광주지역 산업단지 제조업 생산 40%, 수출 31%, 고용 37%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3년 전만 하더라도 하남산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3만명이 넘었고 가동률도 100%로 활력이 넘쳤는데 최근 ‘코로나19’ 등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침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여러 난관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기업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과감한 설비 투자와 시설장비 개선이 필요하다”며 “유관기관은 기업의 기

술능력을 평가해 세제·자금 지원을 뒷받침해야 하며, 대기업은 중소기업체에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이사장은 광주시가 역점 추진하는 ‘광주형일자리’, ‘AI(인공지능)’가 지역 발전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의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대한민국 선진 고용창출의 롤모델인 광주형일자리사업을 실현할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올해 본격 가동되면 지역 제조업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주고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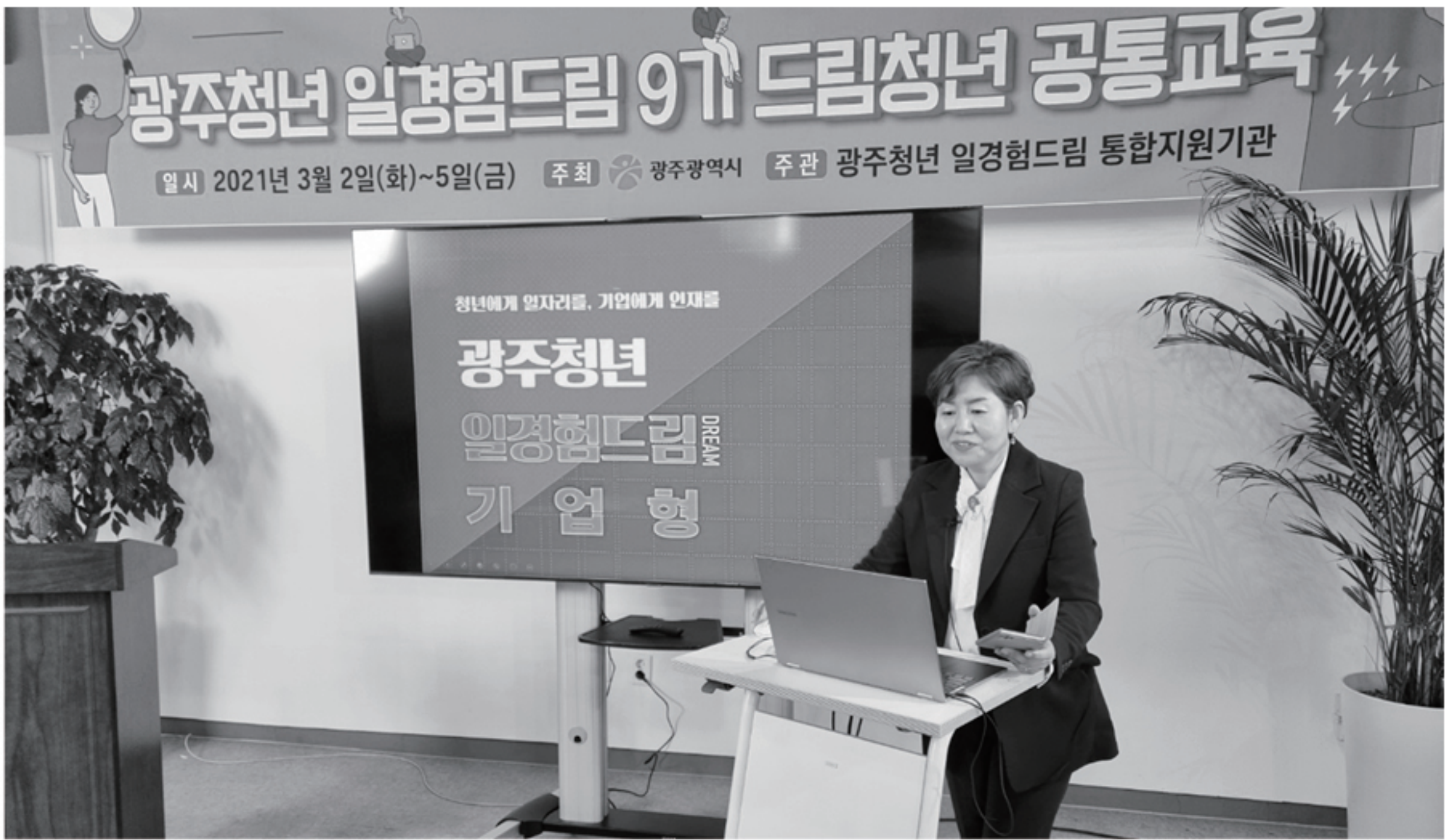
이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인공지능 혁명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광주가 AI산업을 선택한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인공지능산업을 밑거름으로 지역 벤처기업들이 성장해 광주가 실리콘밸리 못지 않은 대표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광주시, 지역민 모두 힘을 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원 기자 swpark@jnilbo.com



## II. 광주경충 소식

### <광주청년일경험드림-기업형 9기 드림청년 공통교육>



본회 광주청년일경험드림은 지난 2~5일 4일 동안 동구 창업보육센터에서 9기 드림청년 비대면 온라인 공통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공통교육은 9기 기업형 드림청년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zoom 화상회의를 이용해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사업일정 안내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공통교육을 수료한 드림청년은 8일부터 7월말까지 각 참여 드림터에 근무하며 현장에서의 일경험 통해 본인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무와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 <중장년센터 제4,5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본회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지난 3,4일 이틀 동안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9층 특강실에서 제4,5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구직자에게 일 중심의 경력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참여한 인원 57명 모두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 사무국 일지(3.2 ~ 3.5)

3.2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남지노위 조정회의</li> <li>● 광주청년일경험드림 9기 드림청년 공통교육(~5일)</li> </ul>	3.4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년센터 제5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li> <li>● 하남산단공 이사장 이·취임식 참석</li> </ul>
3.3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년센터 제4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li> </ul>	3.5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509회 금요조찬포럼</li> <li>● 소비자보호원 회의</li> <li>●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li> </ul>



## II. 광주경중 소식

### 〈제1509회 금요조찬포럼〉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김봉길)는 3월5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조천호 전,국립기상과학원장을 초청하여「기후위기, 거대한 가속에서 담대한 전환으로」란 주제로 제1509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기후 위기는 인류가 지금까지 겪은 모든 위험과 질적으로 달라 통제와 회복을 할 수 없다. 담대한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명은 온난한 기후로부터 시작해 농업의 시작과 문명을 발달시키는 조건이 됐다. 산업혁명 이후부터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경제성장은 급속도로 빨라져 현재에 이르렀고, 경제 성장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구의 몫이 되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인간이 만든 물질을 지구에 끊임없이 뱉어내야 하는데 현재 인류는 찜통의 지구 계곡에 서 있는 상황이다. 최악의 상황이 오면 빙하가 녹고 있는 상황에서 바다가 드러나 태양에너지를 온전히 흡수하여 지구 스스로 기온을 상승시키고,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요소가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기온 상승도 함께 일어난다. 지구 온도가 현재보다 0.5도 상승하여 1.5도가 올라가면 항상 안 좋은 날씨가 일어나고, 2도가 높아지면 지구조절시스템이 붕괴된다.

기온이 상승하면 극단적 날씨가 지속되어 물 부족, 생물 다양성 붕괴, 해수면 상승 등으로 연안 인근 도시가 침수되고 해양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인간의 생존기반도 무너진다. 현재 기후 위기를 대응하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체제로 사회와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이산화탄소량을 줄이는 행동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정책 결정자들이 회의를 통해 이뤄진다. 앞으로 자원은 순환되고, 에너지는 재생되어야 인류는 지속할 수 있다. 현재 배출량을 그대로 유지하면 회복과 통제가 불가능한 위험한 상태로 들어서므로 지금 세대가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고 할 수 있다. 담대한 전환.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어야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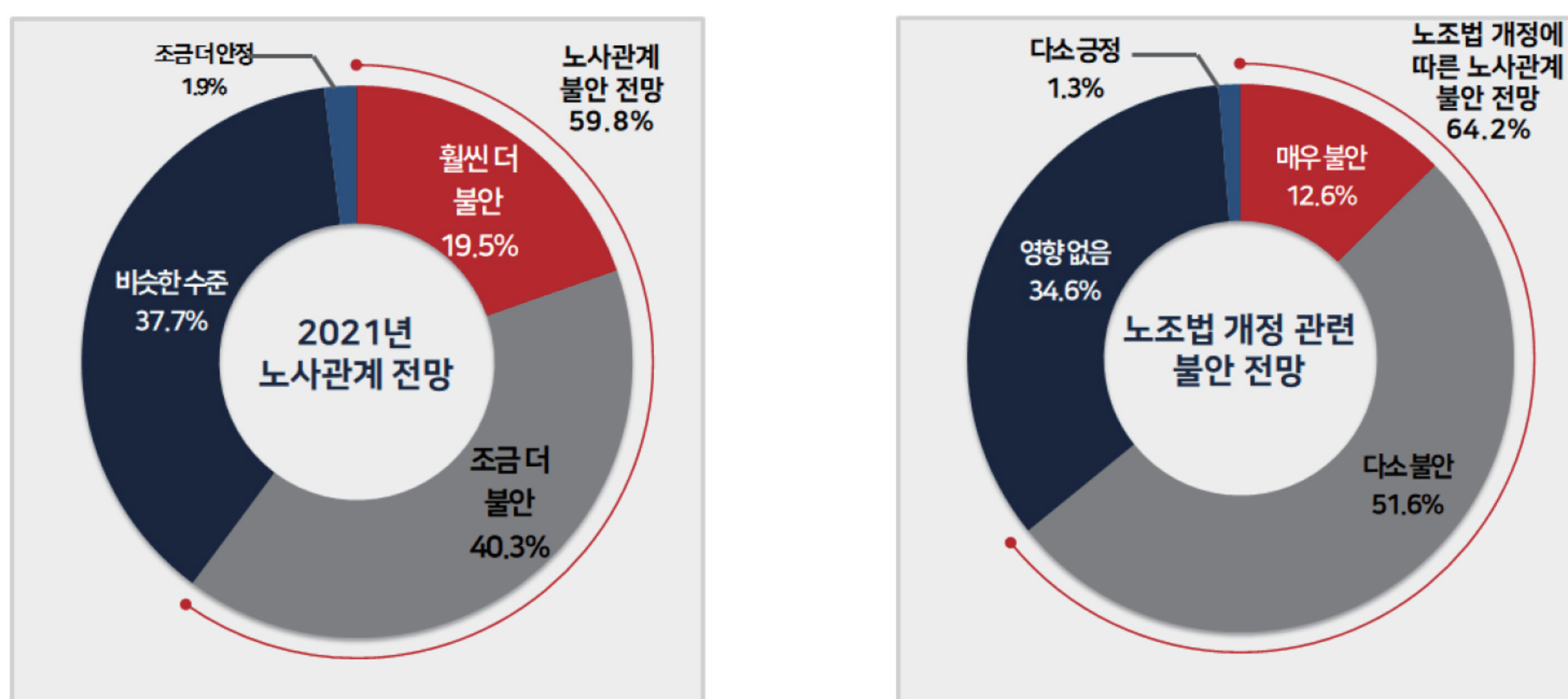


## 1. 노사 동향

### ■ 경총은 「2021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 발표

- 응답기업 159개사 중 59.8%는 2021년 노사관계가 2020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
  - 개정 노조법 시행,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보궐선거 및 차기대선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
- 또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 노조법 개정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64.2%에 달한 것으로 조사

### [ 참고 ] 2021년 노사관계 전망 및 노조법 개정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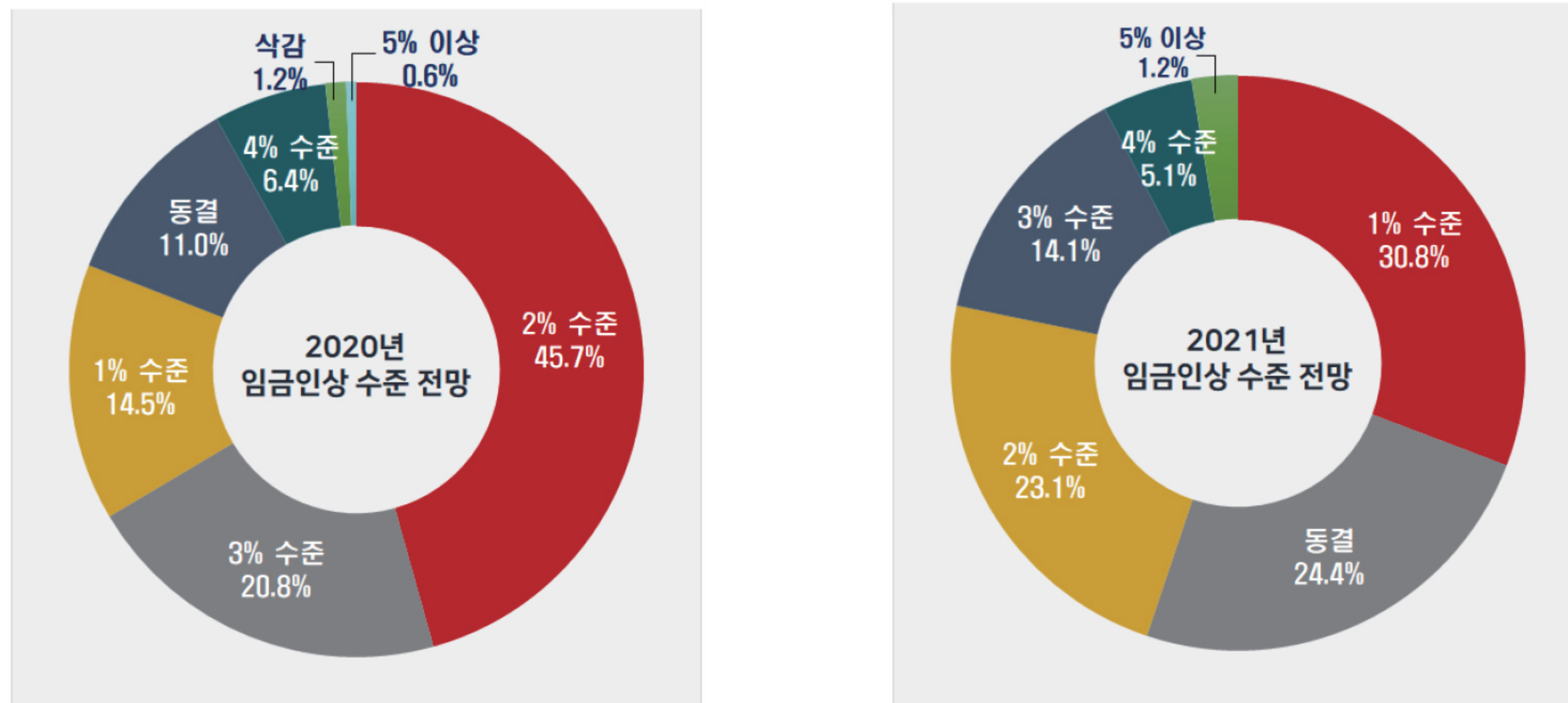


- 2021년 임금인상 수준 전망에 대해서는 '1% 수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 2020년에는 '2% 수준' 응답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지만, 올해는 '1% 수준'을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동결'로 응답한 기업도 24.4%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



###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참고 ] 2020년 및 2021년 임금인상 수준 전망



#### ■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국회「본회의」 통과

- 국회는 2. 26「본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의결
  - 국회가 의결한 ILO 핵심협약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 동의안(제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 동의안(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 동의안(제98호)임.
- 향후,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에 3개 협약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며, ILO 핵심협약은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 협약의 효력이 발효
- 경총은 경영계가 제기한 법 개정 사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노조법 개정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2. 19)
  - 경총은 ILO 핵심협약이 발효될 경우 노조의 단결권이 강화되어 노사관계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사용자의 대항권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
  - 또한, 사용자의 대항권을 위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삭제, ▲대체근로의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의 보완입법을 요청



## 2. 법제 동향

### ■ 정춘숙 의원(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 24)

- (발의 이유) 2019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6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성별임금격차를 발표한 2000년도 이래 지속되는 상황
- (주요 내용)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동일노동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등에게 성별 임금격차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공시

### ■ 민형배 의원(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 25)

- (발의 이유) 현행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여 근로시간 유연성을 도모하고 있지만 근무장소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규정은 미비
- (주요 내용) 현행법에 근로자가 자택에서 근무하거나 사용자와의 합의로 정한 별도의 근무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원격근무를 최소 연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 수준 이상의 위기정보가 발령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추가 원격근무도 가능토록하며, 원격근무를 허용하지 않거나 원격근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과태료 및 벌칙 부과

### ■ 노웅래 의원(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 25)

- (발의 이유)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조치를 하며 해당 자료를 3년간 보존토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고 누적된 자료 활용 및 개선에 한계



###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주요 내용)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신설하고, 위험성평가의 보존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며, 보존의무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 양경숙 의원(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 26)

- (발의 이유) 현행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신 후 12주를 초과하고 36주 미만인 기간에 있는 임산부 역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 존재
- (주요 내용) 근로시간 단축 대상 범위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로 확대

#### ■ 위성곤 의원(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 26)

- (발의 이유) 여성 구직자들은 채용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혼인여부를 알 수 있는 이성관계, 결혼계획, 동거인, 자녀계획 등의 질문을 받고 있는 실정이나 이는 채용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
- (주요 내용) 면접 등 채용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할 개인정보 중 혼인여부를 구직자 본인의 혼인여부 · 혼인계획 · 자녀유무 · 자녀계획 · 동거인 유무로 구체화